

수능 마지막 점검...오늘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수시 지원 척도 실력 측정 등급컷 확인 기회 학습계획 길잡이 적극 활용을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4일 실시된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수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도 시험 직후인 오는 6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가채점 결과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출제·채점과정의 개선점을 찾아 수능에 반영한다.

특히 6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9월 모의평가는 출제 범위가 수능과 같고, 현 대학생들도 수능을 다시 보는 이른바 '반수생'의 응시가 많다. 이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등급 등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여겨진다.

4일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국 54만 9224명으로, 재학생은 45만 9217명, 졸업생 등은 9만 7명이다.

광주에서는 61개 고등학교와 14개 학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 9146명이 응시하고, 전남에서도 102개 고등학교와 3개 학원에서 총 1만 4907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다.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영

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실제 수능과 똑같이 진행된다.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오른 편에는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과목명이 색인 형식으로 제공된다. 수험번호 기재란 옆에는 선택과목 응시 순서 기재란도 제공된다. 이는 본 수능 때도 똑같이 제공된다.

답안지 채점 역시 수능과 같은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해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고, 연필·샤프 등을 사용하는 등 흔적이 남는 경우 중복 채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되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과 응시자 수만 기재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처

리되고,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4~7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7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10월 1일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진학사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성적이 저만하거나 주목 들기보다 이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모의평가를 본 뒤 기대하는 수능 성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의평가와 함께 2019학년도 고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광주 55개교 고교 1학년 1만 4135명, 2학년 1만 3882명이 응시하고, 전남은 95개교 고교 1학년 1만 2568명, 2학년 1만 2622명이 응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7 해질 18:56 달뜨기 11:16 달지기 22:20

그치지 않는 비 소식

서해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다.

광주	비	23/27	보성	비	21/26
목포	비	23/26	순천	비	22/27
여수	비	23/25	영광	비	22/27
나주	비	22/27	진도	비	22/26
완도	비	23/26	전주	비	22/28
구례	비	22/27	군산	비	22/29
강진	비	23/27	남원	비	21/27
해남	비	22/26	축산도	비	21/25
장성	비	22/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0~1.5	남동~남	1.0~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10:39 23:02	05:38 18:08
여수	06:02 18:31	00:03 12:34

◇주간 날씨

날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	☁	☁	☁	☀	☀	☀
기온	23/28	23/29	23/28	21/29	21/30	22/30	21/29



추석 맞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10여일 앞둔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각종 과일의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환경부 저감방안 확정

환경부가 광양제철 등 제철소 용광로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안전 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 배출문제(광주일보 2019년 4월 4일자 6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돼 온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은 밸브 개방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줄이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업계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아적시설 밀폐화 등 날림 먼지 저감 같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이 30여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광양제철측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생 성적 위주 선발 여전

10명 중 4명 1~2등급
원거리 통학생은 11% 불과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생 10명 중 4명은 성적상위권인 내신 1~2등급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성적 위주의 기숙사생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지역 28개 일반계 고

교 기숙사 전체 정원 2482명 중 내신 1등급은 344명(13.9%), 2등급은 596명(24.0%)이었다. 내신 1~2등급 학생이 총 940명(37.9%)으로, 기숙사생 10명 중 4명은 성적상위권이 선발되는 셈이다.

반면 전체 사회적통합대상자는 110명(4.4%), 원거리 통학자는 282명(11.4%)에 불과했다. 광주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정원 10%를 사회적 통합대상자, 5%를 원거리 통학자로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를 준수한 학교는 2곳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모임 측의 설명이다. 사회적 통합대상자 비율을 지킨 곳은 3개교, 원거리 통학자 비율을 지킨 곳은 17개교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 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만한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숙사에 성적우수자를 몰아 넣고 기숙형 학원처럼 운영하다 보니 시험 문제 유출 등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20주년 행사

9일 5·18기념문화센터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리셉션 홀에서 사전행사를 하고, 오후 7시 20분부터 대동홀에서 본행사를 이어간다. 또 지부 사업과 활동을 정리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20주년 변론사'도 소개한다.

역대 지부장이 '스무살 광주 민변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후배 변호사와 간담회도 갖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999년 9월 3일 11명의 변호사가 모여 활동을 시작했다. 5·18 진실규명, 과거사 청산, 인권 보호 등 20년간 공익변론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60여명에 이른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2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내일 건설업계 채용박람회 개최

조선대학교가 지역 학생들에게 건설업계 취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 실무진들을 참석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건설업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3일 조선대에 따르면 건설업계 채용박람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입석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조선대학교가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취업학부처와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후원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2019년 도급순위 1위), 현대건설(2위), 대림산업(3위), GS건설(4위), 한신공영(16위), 계룡건설산업(18위), 금호산업(20위), 제일건설(26위), 삼호(30위), 우미건설(35위), 동부건설(36위), 남양건설(106위) 등이다.

/채희중 기자 chae@

호남동 대원빌딩 **층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